

AUTHOR 허순길

TITLE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IN 고신대학보

vol. 7 (December, 1974): 10-12

□ 목 차 □

■ 교회생활 지남 ■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허 순 길... (10)

■ 설 교 ■

영원한 톱 뉴스 임 중 만... (13)

□ 논 단 □

1975년의 전망..... 오 병 세... (16)

구주성탄의 의의(意義) 편 집 실... (21)

산타 크로스 추방론..... 신 현 국... (25)

S. F. C. 의 강령과 사명 편 집 실... (27)

겨울 방학과 가정 교육..... 정 홍 권... (45)

■ 집회현장 ■

제32회 동기수양회를 알아본다 (30)

너희 몸을 영적 산제사로 (39)

■ 서 평 ■

성경과 신앙고백..... 이 근 삼... (41)

□ 문 예 □

· 수 필 ·

메달 6백개와 연탄 1만장 백 성 호... (36)

· 동 화 ·

순회의 효도..... (37) 겨울 숲..... 유 정 희... (38)

■ 대회참가기 ■

로잔느대회에 다녀와서 (2)..... 오 병 세... (32)

□ 소 식 □

□ 개척교회 탐방

교회생활 지남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허 순 길

신학교육은 교회가 그 맡은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의 구원의 "말씀"을 부절히 증거하고, 파수하며 번증하고 순수하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학교육을 위한 기관을 가지는 것이다. 교회는 이 기관을 통하여 말씀의 증거자인 목사와 말씀의 번증과 교육을 위한 학자들을 양성함으로 그의 맡은 역사적 사명을 다해가는 것이다.

칼빈은 이 교회의 사명을 누구보다 강하게 자각했다. 그는 지난 날의 교회의 실패가 참된 "말씀"의 교육의 부재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1541년에 그는 벌써 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려면 바른 신학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공동교육기관을 학대시켜서 전문적인 신학교육기관을 갖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반대자들의 장애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오래도록 실천치 못하였다. 18년간의 그의 끊임없는 기도와 불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1559년에 드디어 제네

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칼빈은 진정 이 기관이 제네바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교회 개혁운동의 봉사자들이 양육을 받는 요람이 되고, 박해속에서 나아가 싸우는 투사들의 훈련도장이 되기를 바랐다. 이 기관을 설립한 뒤 칼빈은 십자가 아래 있는 불란서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무토막을 보내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화살을 만들어 보내리라"고 권지했다. 과연 이 학교가 설립된지 4년만인 1563년에, 이미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무장한 개혁의 역군들이 불란서 전지역에 흩어져 주님의 교회들 봉사하겠끔 되었다. 곧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불란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화란 등 세계각지의 정열에 넘치는 젊은 일꾼들을 불러 훈련시켜 교회 개혁의 역군으로 파송을 하였던 것이다. 17세기 하반기에 제네바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화란교회 개혁운동에 봉사한 역군들이 무려 275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이렇게 제네바는 칼빈이 세운 아카데미로 말미암아 세계교회 개혁운동의 요람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레쾰 1559년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평온무사한 환경에서 설립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었다. 이 기관 설립은 주위의 시기와 위협속에서 진행이 되어왔다.

로산(Laussane)에서는, 베자(Theodore Beza)와 같은 귀한 학자들을 제네바에 빼앗기고, 이르기를 제네바 아카데미는 찾아 오는 학생이 없으므로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이 아카데미는 문을 연지 얼마 안되어서 162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고, 5년후인 칼빈이 세상을 떠난 1564년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혁의 원천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고등부(Schola Privata)에 1200명, 신학부 아카데미(Schola Publica)에 3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주위의 시기 외에 정치적인 세력의 위협은 대단하였다. 서반아의 필립 2세와 불란서의 헨리 2세는 1559년 화약을 맺고 개혁운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연합전선을 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위협에 직면한 칼빈은 결코 실의에 빠지지 않고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베드로 교회당에서 시편 46편을 본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는 제목의 결정적인 설교를 하였다. 이 모든 시기와 위협속에서도 제네바와 아카데미는 하나님

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이 칼빈 한사람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신학교육기관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기관으로 알아 협력한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물론 이일에 제네바 시의회가 협력을 했지만,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모우는 일은 칼빈이 하였다. 이 때에 모든 성도들이 땀땀을 가릴것 없이 열광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 일을 성취할 수 없었다. 이 기금을 위하여 부유한 출판업자 에스틴(Robert Estinne)이 바친 312폴로란이란 거액의 헌금이 큰 기여를 했으려니와, 최초로 헌금에 응한 가난한 빵장수 부인의 동전 다섯잎도 그에 못지 않는 기여를 하였다. 실로 이 아카데미의 설립은, 이 신학교육기관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다고 보겠다.

오늘의 제네바 대학이 칼빈의 이상에서 떠났고, 참된 교회를 위한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렸지만, 당시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교회의 학교로서 교회를 위한 자기 사명을 다하였던 것이다.

설립된지 어언 30년째의 돌을 앞두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은 한국남단 부산에서 칼빈의 일을 품고 교회를 위한 교회의 학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왔다. 30여년의 연륜을 헤아려 오는 동안 내외의 도전을 받으며 존폐의 위기를 맞은 일도 몇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원래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재건을 목적으로 출발한 학교였기에, 학교자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목적의식을 버리지 않고, "교회봉사"라는 사명에 충성을 기울였고, 교회는 이 기관은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학교"라는 생각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협력하여 옴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신학대학 주변에 암운(暗雲)이 일기도 했으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불들어 주심과 함께, 이 "교회의 기관"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밝은 빛 가운데 서게 해 주셨다.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신학대학의 신축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칼빈과 제네바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이 하나로 엉기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던 모습을 눈앞에 그리게 한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와 세계 교회의 현재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신학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교회의 역사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멀리 그 예를 찾을 것 없이 해방후 교회의 근본적인 재건을 부르짖고 나오던 "재건교회는 30여년 동안의 신학부재로 말미암아 방향이 없이 떠돌다가 파산을 당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의 학교"가 있음을 감사한다. 우리는 이 학교가 진정 우리교회를 위한 "우리 학교"라는 의식을 한번더 새로이 가져야겠다. 그럴 때에 이 학교에 사랑이 가고 뜨거운 기도가 있게 되며 물질적인 지원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 학교가 "우리 학교"라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거대한 신축공사가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의 이런 자각과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지난 2월 본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온 박형룡박사는, 그의 설교에서 "서서의 제네바와 그 대학은 변했으나 한국의 제네바가 되려는 부산은 변치 마소서, 변치마소서! 한국의 제네바대학이 되려는 고려신학은 변치마소서! 변치마소서!" 애초하듯 기원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이 맡은 이 사명은 전국교회가 이 학교를 "우리의 학교"애로 생각하고 사랑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